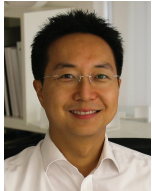


건축과 시간

Architecture and Time



유현준 | Yoo, Hyunjoon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는 건축사적인 관점에서 독일의 1920년대 힐버자이머의 아이디어를 도시에 적용시킨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아마도 전 세계에 이처럼 많은 근대적 아파트를 적용한 사례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 예전에 필자가 유치원생 때 처음으로 여의도에 지어진 아파트에 갔을 때가 생각난다. 아버지 친구 분 댁에 놀러갔을 때가 한겨울이었는데, 강북의 주택에 살던 필자는 평소처럼 두꺼운 스웨터와 내복을 입고 있었다. 필자는 그때 두 번 놀랐다. 하나는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점. 내복까지 꺼입는 필자는 더운 집에서 땀을 뻘뻘 흘렸던 기억이 난다. 둘째로 수도꼭지만 틀면 펄펄 나오는 온수. 이 같은 놀라운 경험은 아마도 온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을 것이다. 70년대 초반 당시만 하더라도 샤워는 생각도 못했고, 목욕을 하려면 물을 데워서 통에 받아놓고 하든지 아니면 동네 공중목욕탕에 가야했었다. 그러던 한국인의 일상에 1년 365일 나오는 온수와 춥지 않은 겨울을 날 수 있는 아파트는 풍요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다. 아마도 이후 30년간 한국인의 삶의 목표는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오토드라이브가 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지난 30년간 최고의 히트상품은 아파트였다. 마치 아이폰을 가지면 자신이 스마트해지는 듯한 착각을 하듯이 아파트에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던 시절이다.

그렇게 중산층의 삶의 표본이 되었던 70~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지금은 바뀌어서 혐오의 대상이 된 듯하다. 어쩌면 우리 국민은 과거의 것들은 모두 없애야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하기도 하다.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절에는 과거의 유산인 초가집이 철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초가집은 없어져야했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집을 공급하는 것이 농촌 새마을 운동의 골자였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벽돌로 속칭 집장사들이 지어대는 양옥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40년이 지나서 우리는 다시금 불과 한세대 전에 지은 강남의 강변아파트들과 강북의 달동네 양옥집을 철거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인다.

우리의 도시는 유럽의 유서 깊은 오래된 도시에 비해서 건축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 이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 단순하게 우리의 도시에 건축을 구경하러 오는 외국관광객이 없다는 점을 보면 증명이 된다.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래된 건축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싶다. 건축은 사람의 수명보다 오랫동안 지속된다. 오랜 시간 견뎌오면서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아내고, 사람의 냄새가 베어나는 '환경'이 되는 법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새롭게 지어진 젊은 건축물들만 있을 뿐이다.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니 시간이 만들어내는 유서 깊은 도시가 없는 것이다.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치고는 너무나 오래된 건축이 없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농업중심의 국가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업과 상업이 근간을 이루어야 만들어지는 도시의 역사 역시 짧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랜 시간의 켜가 느껴지는 건축과 도시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냄새 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존' 일 것이다. 그 보존이라는 것이 이조백자 보존하듯이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냥 두자는 보존이 아니다.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은 하되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그리는 그림은 좀 자제하자는 것이다.

필자가 유치원 사생대회에 나갔을 때의 경험이 생각난다. 그림을 그리다가 망쳐서 맘에 들지 않으면 울면서 망친 그림을 버리고 새 도화지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었다. 원하는 그림은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부교수 및 (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 소장, 미국 건축사(AIA), 연세대학교, MIT, 하버드에서 건축공부를 하였다.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 후, Richard Meier 뉴욕사무소에서 실무하였다. MIT 교환교수와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학과장을 역임했다. '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과 '건축가협회 베스트7상', '젊은건축가상', '한국현대건축 아시아전' 초청작가를 수상 비롯하여 5번의 국제현상설계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작품 Floating House는 CNN에서 선정한 Seoul's Architectural Wonders의 15개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때때로 시간은 사춘기의 가슴 아픈 실연의 기억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준다.
 건축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어려서의 실수도 아름답게 채색되는 법이다.
 우리가 지난 삼십년간 열심히 지어대었던 아파트도
 열심히 했던 첫사랑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있는데 그것이 내 도화지에 그려지지 않는다고 계속 다시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개발의 모습은 마치 올면서 새 도화지를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 같다. 몇 십 년 동안 유럽의 근대 건축가들이 그려낸 그림을 보고 우리가 미래의 멋진 도시를 만들려면 저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열심히 아파트를 지어댔다. 그런데 만들어진 도시가 유럽의 사진 속에 나오는 그림 같은 도시가 아닌 것에 실망했다. 그리고는 지금 와서는 그 건축물들을 부수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재개발해야겠다고 한다. 이는 마치 새로운 도화지를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산토리니 섬이나 파리의 중층형 집합주거의 형태도 사실 알고 보면 그 당시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지어낸 나름대로의 시대정신의 산물이다. 최근 들어서 고밀도 도시의 대안으로 많이 이야기 되는 바르셀로나의 경우를 보더라도 계획되어진 도시로 8층 정도의 집합주거가 거의 비슷하게 건설되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건축물들도 당시에 대량으로 지어진 우리의 '아파트'같은 건물이다. 다만 승강기와 건축구조가 크게 발달하지 못해서 중층 정도로 지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건축물들이 백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도시 형태로 자리를 잡고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리로 수백 년 전 당시에 유행하던 집합주거로 채워진 도시일 뿐이다. 도시라는 것은 그 시대에 최선의 기술과 경제 시스템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 판상형 아파트로 가득 찬 강남의 한강변도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구경하러 올 20세기를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아파트는 철거해야 마땅한 환멸의 대상이 아니라 약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보존의 대상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삼십년이 넘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나무들이 건물을 가릴 만큼 자라서 그렇게 흉측해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연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예처럼 보인다. 건축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완성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를 짓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충분히 많이 지었다. 이제 더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아무리 흉측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과거 흉측한 화력발전소도 현재의 멋진 테이트모던 미술관이 되었고, 버려진 기차역이 바뀌어서 파리의 올세이 미술관으로 멋지게 재탄생되었다.

때때로 시간은 사춘기의 가슴 아픈 실연의 기억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준다. 건축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어려서의 실수도 아름답게 채색되는 법이다. 우리가 지난 삼십년간 열심히 지어대었던 아파트도 열심히 했던 첫사랑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한 개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옛날 여자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던 앨범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 후에도 몇 년간 가지고 있다가 이사 때마다 집사람에게 눈치 보이는 것이 싫어서 결혼 후 6년 만에 귀국 이삿짐을 싸면서 옛 여자 친구들이 녹음해준 테이프들과 함께 버렸다. 지금 와서 그 사진들과 테이프들이 있었다면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후회하곤 한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부숴대기만 한다면 우리의 도시도 훗날 추억거리가 없음에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



현대 아파트 단지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